

비즈프리즘 | 유통 대기업들, 새벽배송 시장 본격 진출

롯데·신세계·CJ까지 “새벽을 잡아라”

올해 시장규모 8000억 원 예상
오프라인 매출 부진 돌파구 주목
신선도 유지·인건비 등 출혈 커

2015년 스타트업 마켓컬리가 시장을 개척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새벽배송이 이제 유통공룡들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공룡들이 가세하고, 식품업계의 리더 브랜드 CJ까지 나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새벽배송은 2015년에 시장규모가 100억 원대였다. 하지만 불과 3년만인 지난해 4000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8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오프라인 유통망의 부진으로 매출이 정체된 유통대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돌파구다.

지난해 2월부터 롯데슈퍼를 통해 새벽배송 노후를 쌓아온 롯데그룹은 7월 22일 롯데홈쇼핑의 온라인몰 롯데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홈쇼핑 직원. 유통 대기업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출이 이어지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아이몰에 새벽배송 전문관 ‘새벽배송’을 오픈했다. 평일 오후 6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대상 품목은 TV홈쇼핑과 롯데아이몰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간편식 등 500여 개 상품이다. 우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2020년 상반기에

롯데슈퍼와 연계해 수도권과 지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일섭 롯데홈쇼핑 CS혁신부장은 “프리미엄 상품, 친환경 배송,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6월 말 온라인몰 SSG닷컴을 통해 서

울 10개 구에서 새벽배송을 시작한 신세계그룹은 최근 하루배송 물량을 3000건에서 5000건으로 늘렸다. 배송권역도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17개 구로 늘렸다.

여기에 식품업계의 강자인 CJ그룹도 9월부터 CJENM 오소프부문을 통해 새벽배송을 론칭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벽배송의 원조 격인 마켓컬리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이고 이미 새벽배송을 운영하던 현대백화점 그룹, GS리테일도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 경쟁은 당분간 손해를 각오하는 출혈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인건비, 물류비, 포장비 등의 비용 부담이 기존 배송보다 월등히 높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 이용이 늘면서 취급 품목도 기존 신선식품에서 기타 상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7월 31일

코스피지수	2024.55	↓	-14.13
코스닥지수	630.18	↑	+4.54
日 닛케이 지수	2만1521.53	↓	-187.78
中 상하이 종합	2932.51	↓	-19.8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30	↓	-0.01
환율 (원·달러)	1183.0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5만4440.17	↑	+256.93

화웨이, 미국 제재에도 상승세 상반기 매출 전년비 23.2% 증가

화웨이가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갔다. 화웨이는 올해 상반기 매출 4013억 위안(약 68조8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성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순이익률은 8.7%로 집계됐다.

캐리어 비즈니스 사업 매출 1465억 위안(약 25조1400억 원)으로 무선 네트워크, 옵티컬 전송, 데이터 통신 등 생산 및 출하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사업부는 매출 316억 위안(약 5조4200억 원)을 달성했고, 아너를 포함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1800만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 성장했다. 태블릿, PC,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하량도 크게 늘었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미국의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 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 화웨이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올해 R&D에 1200억 위안(약 20조5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donga.com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진...상반기 영업익 반토막

시장 침체로 분기 영업익 3조원대
일수출 규제로 시장 회복 불투명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로 인해 2분기 연속 6조 원대의 영업이익에 머물렀다.

7월31일 공시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매출 56조1300억 원, 영업이익 6조 6000억 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했지만 전 분기보다는 7.1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역시 지난해 동기 보다 55.63% 줄었으나 전 분기에 비해 5.84% 늘었다.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전년 대비 실적은 악화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과 CE 부분의 판매 확대로 1분기 대비 실적은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2019년 상반기 전체 실적은

보면 매출액은 108조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5%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2조83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95%나 줄었다.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대에 그쳤다. 반도체는 2분기에도 매출 16조900억 원, 영업이익 3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률은 21.1%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는 계절적 성수기이나, 대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는 당초 반도체의 재고 감소와 가격하락 둔화 등의 호재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삼국지 이야기 담긴 고풍주 즐기세요
롯데백화점이 서울 잠실점에서 ‘삼국지 고풍주 팝업스토어’를 운영, ‘삼국지 에디션 패키지’를 판매한다. 삼국지의 인기 캐릭터와 주요 사건들을 글로 구성한 제품이다.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끝 맛이 깔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NS홈쇼핑, 8월 최대 미용 박람회 참가 모집

NS홈쇼핑이 8월 30일까지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미용 박람회’에 참가할 협력사를 모집한다. 11월 13~15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용 박람회다. NS홈쇼핑은 박람회 부스 비용 등 참가비 일체를 부담한다. 바이어 미팅 사전 예약제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세스도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암젠코리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처음 도입해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암젠코리아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 실행,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정욱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다양한 직렬 대비 학습과정 신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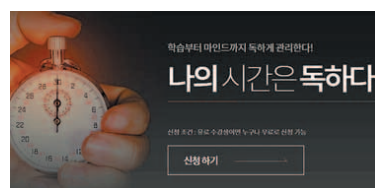
9급공무원 합격하려면? 독한 학습관리가 답!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46.4대 1이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다. 반면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49.2%로 지난해(47.2%)보다 늘었다.

7급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의 7급공무원 경쟁률을 보면 2015년 81.9대 1에서 2016년 76.7대 1, 2017년 66.2대 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작년에 치러진 시험의 경쟁률은 47.6대 1이었으며 올해 역시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9급공무원 자격시험의 경쟁률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지금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 응시자 비율과 합격률도 늘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듀윌에서는 공무원 시험 관련 학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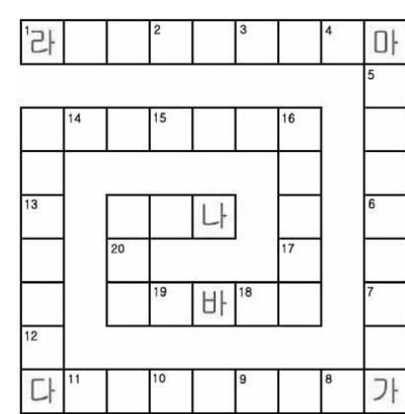
직공무원, 계리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학습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 회사는 자사 학습과정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직렬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경위직’이라는 직렬을 추가 신설했다. 이 직렬 대비 과정에는 2020년부터 바뀌는 시험 과목까지 개편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에듀윌은 학습부터 마인드까지 독하게 관리하는 ‘독한 에듀윌’ 학습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자사 과정 학습자들이 보다 확실한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 시설을 확장 중이다. 9급공무원 및 7급공무원 수험 과정을 포함하여 경찰공무원, 기술

■ 낱말문제



01. 시계 따위의 톱니바퀴가 자꾸 돌아가는 소리. 02.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따위의 양념과 함께 버무려 만든 김치. 03. 학교나 회사 따위에 팔려 있어 학생이나 사원에게 씌웠으므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04. 병풍 따

위에 불, 여름, 가을, 겨울의 독특한 풍경을 그린 그림. 05. 도배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06. 안쪽에 여러 줄로 고풍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자박. 07.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음. 08. 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09. 자연수를 증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물. 10. 옛 제도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당파. 11. 어떤 일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맡아 하는 제도. 12. 특정한 사회나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상대가 없는 사람. 13. 아주 자신(自信)이 있음. 14. 늙어서 낡은 자식. 15.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나 행위. 16. 물고기는 머리 쪽이 그중 맛이 있다는 말. 17.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 18. 찹쌀을 찌서 떡매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 19.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는 식사. 또는 그런 음식. 20.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

■ 낱말정답

단어 이야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 나. 다. 라. 마. 바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